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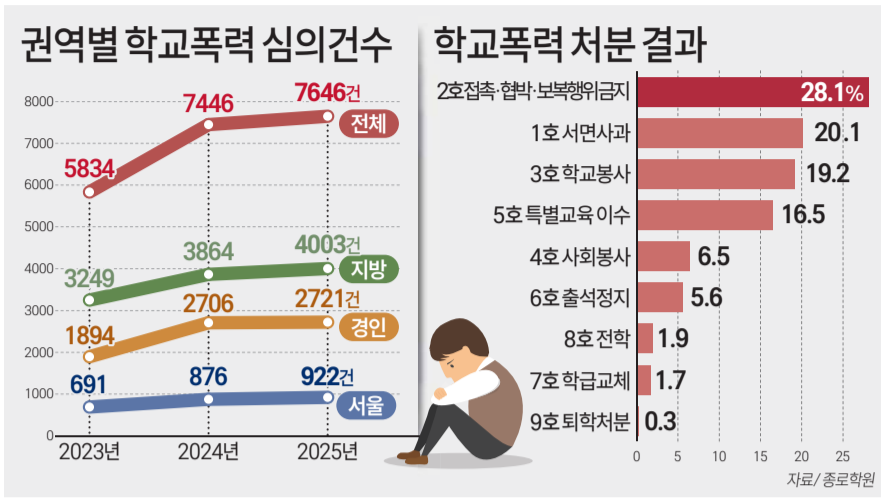
학교폭력 한번이면 입시 타격... 심의 건수 3년 연속 증가

지난해 고교 심의 건수 7646건 실제 처분 건수는 감소세 전환 언어폭력 32.5%로 가장 많아 일부 대학, 서면사과도 불이익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3년 연속 증가한 반면 실제 처분 건수는 감소했다.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이 강화되면서 피해 학생 측의 심의 요청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31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2397개 고교의 학교폭력 심의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7646건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했다.

고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23년 5834건, 2024년 7446건, 2025년 7646건으로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권역별로는 서울이 전년 대비 5.3%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방은 3.6%, 경인은 0.6% 각각 늘었다.



학교 유형별로는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와 국제고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전국단위 자사고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전년 대비 112.5% 증가했고 국제고는 116.7% 늘었다. 외국어고는 8.3%, 지역단위 자사고는 7.7%, 일반고는 3.4% 각각 증가했다.

심의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신체폭력 25.6%, 사이버폭력 13.4%, 성폭력 9.5%,

따돌림 8.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요와 따돌림은 증가폭이 컸다. 강요는 전년 대비 29.2%, 따돌림은 26.3% 증가했다. 단순 신체 접촉이나 폭행뿐 아니라 관계 배제, 심리적 압박, 온라인 공간에서의 갈등 등이 학교폭력 심의 대상으로 적극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실제 처분 건수는 2023년 1만1258건, 2024년 1만2975건, 2025년 1만2628건

으로 지난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에는 복수의 피해학생이 포함될 수 있어 실제 처분 건수는 심의 건수를 웃돈다.

처분 결과를 보면 2호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가 28.1%로 가장 많았다. 이어 1호 서면사과 20.1%, 3호 학교봉사 19.2%,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16.5%, 4호 사회봉사 6.5% 순이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조치인 9호 퇴학 처분은 42건으로 전체의 0.3%에 그쳤다.

이는 학교폭력 심의가 늘고 있지만 중대한 폭력 사건보다는 비교적 경미하거나 다양한 유형의 갈등 사안까지 심의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현재 주요 대학들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수시와 정시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일부 대학은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인 1호 서면사과부터 감점 또는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이후에는 학생부 평가 비중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어서 학교폭력 기록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

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는 2027학년도 수시 일반전형·지역균형전형과 정시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정성평가에 반영한다. 연세대는 수시 추천전형과 체육인재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없도록 했고, 논술전형에서는 조치 수준에 따라 5점에서 최대 50점을 감점한다. 고려대는 수시 학교추천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정성평가에 반영하고, 논술전형과 정시에서는 조치 수준에 따라 감점을 적용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입 전형에서 실질적인 평가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식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향후 학생부 평가 강화까지 예정된 만큼 학교폭력 사안이 학업과 진학에 미칠 영향을 보다 신중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K-의료·뷰티 효과... 외국인 소비 1조 돌파

서울시, 4월 외래 관광객 156만명 웰니스 등 소비 늘고 지역도 다변화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가 쇼핑 중심에서 의료·뷰티·미식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관광객 회복과 대만 관광객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 지역도 강남권을 넘어 홍대·성수·여의도 등으로 다변화되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카드 소비액이 1조1532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50.5% 늘었다고 밝혔다. 업종별 소비 비중은 쇼핑업이 45.4%로 가장 높았으며 의료·웰니스업 24.8%, 식음료업 13.1%, 숙박업 11.0% 순으로 집계됐다.

자차구별 소비 비중은 강남구가 29.1%로



서울 방문 외국인 관광객 모습. /서울시

가장 높았으며 중구 27.5%, 마포구 7.4%, 서초구 6.5%, 종로구 5.5%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명동·동대문 등 전통 관광상권과 압구정·청담·코엑스 등 강남권 소비 지역의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홍대·성수·여의도 등으로 소비가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관광 소비트렌드 분석 결과 명동은 쇼핑·의료, 강남역·신논현역

은 의료, 잠실역은 쇼핑, 삼성역은 숙박 중심 소비가 두드러졌다.

방문객 국적도 크게 증가했다. 4월 기준 서울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중국 44만명, 일본 23만명, 대만 15만명, 미국 13만명, 필리핀 6만명 순이었다. 1~4월 누적 기준으로는 중국 153만명, 일본 96만명, 대만 56만명, 미국 37만명, 필리핀 18만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만 관광객은 전년 대비 34.4% 증가했으며, 중국 관광객도 2019년 대비 4월 기준 112.6%, 1~4월 누적 기준 105.8% 수준으로 회복했다.

관광 행태에서는 근거리 국가 방문객과 장거리 국가 방문객 간 차이도 나타났다. 일본인 관광객은 평균 3.5일 체류하며 재방문율이 71.2%에 달한 반면, 유럽인 관광객은 평균 7.5일 머물렀지만 재방문율은 26.3%로 조사됐다.

/이현진 기자

“양자 AI 분야 일자리 84만개 창출 전망”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 리포트 발간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가 양자컴퓨팅과 인공지능(AI)의 융합이 산업과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일자리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9일 GJF고용이슈리포트 ‘양자인공지능 시대의 경기도 일자리 정책 연구’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데이터 처리량이 급증하면서 기존 컴퓨팅 기술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양자컴퓨팅과 AI의 결합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금융, 의료, 물류,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활용이 확대되며 생산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자 AI 산업 성장에 따라 203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84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자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분석, AI 윤리, 하드웨어 운영 및 유지관리 등 고부가가치 전문직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에서는 양자기술산업법 시행과 정부의 양자산업 육성 계획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중심의 정책에서 산업화 단계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산업 생태계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데다 전문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특히 양자기술 확산은 고용시장 구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됐다.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는 자동화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양자 알고리즘 설계와 데이터 활용, 시스템 운영 등 고숙련 직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수원시, 실리콘밸리와 첨단산업 유치 협력

KSEA·플러그앤플레이와 협약

수원특례시가 미국 실리콘밸리 기관·기업과 수원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산업 유치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제2회 광고 양자 바이오 서밋과 연계해 2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실리콘밸리지부(KSEA SVC)와 ‘수원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산업 유치 등 미래산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실리콘밸리 기반 글로벌 혁신 액셀러레이터 ‘플러그앤플레이(Plug and Play)’ 본사와 ‘첨단산업 혁신기업 발

굴·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하고, 실리콘밸리 혁신 네트워크와 협력 기반을 확대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현수 수원특례시장 권한대행, 원순호 수원시 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박군호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실리콘밸리지부 지문위원, 플러그앤플레이 벤자민 브랜드(Benjamin Brand) 기업 파트너십 총괄, 신성우 한국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수원시는 2024년 1월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실리콘밸리지부 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와 한미



박군호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실리콘밸리지부 지문위원(오른쪽부터), 김현수 수원특례시장 권한대행, 플러그앤플레이 벤자민 브랜드 기업 파트너십 총괄이 협약 체결 후 함께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과학기술 연구자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수원(경기)=김대의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3 | 해질 / 19:47

6월 1일 (월)
음력 : 4월 16일

수도권 날씨
18 ~ 29°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이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16/28, 동두천 16/29, 가평 15/29, 파주 16/28, 서울 18/29, 양평 17/29, 인천 17/28, 수원 18/29, 용인 18/29, 평택 17/30

·지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종전합의서 서명 안한 트럼프... 美, 이란에 수 정안 발송
▲ 이란 IRGC해군 “호르무즈 통제권 간섭하면 美 군사 보복” /사진 뉴시스

▲ 러 원전 기업 로사톰 “우크라 무인기, 자포리자 또 타격”
▲ 日 넷케이 “중양정부 잔업수당 미지급에 관리 자급 연봉 !”

▲ 세계은행, AI·디지털 인재 한국서 직접 채용... 7월 방한
▲ 페라리 경영진, 교황 레오 14세에 스티어링 휠 선물